

치솟는 채소·과일값...택시·하수도·전세가 줄줄이 인상

# 하반기 서민물가 들썩

8개월 연속 1%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여온 소비자물가가 하반기 들어 들썩이고 있다. 특히 택시요금과 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에 올랐거나 인상을 준비하고 있고 과일·채소류 가격도 급등세를 기록해 서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되 하반기 상승폭이 높은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 공공요금 등 변수에 따라서는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28일 광주시 등 지자체와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광주시의 하수도 요금은 오는 9월부터 가정용은 m<sup>3</sup>당 사용량에 따라 240원~510원, 일반용은 m<sup>3</sup>당 340원~1020원, 옥상용은 m<sup>3</sup>당 300~420원, 산업용은 m<sup>3</sup>당 360원으로 인상된다. 업종에 따라 20~30원 오른 금액이며 2007년 인상한 후 6년만에

오른 것이다.

다행히 원가상승 등 인상요인이 있었던 도시가스 요금은 당분간 동결하기로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었다.

택시요금도 지난 3월 이미 올랐다. 광주시는 중형택시의 기본요금(2km)은 2200원에서 2800으로 600원 인상하고 거리·시간요금은 150m·36초당 100원에서 145m·35초 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총 17.55% 인상된 금액이다.

전세가격도 소폭이긴 하나 꿈틀거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이 매달 조사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주택(아파트·단독 포함) 전세가격은 지난 4월 0.32%, 5월 0.16%, 6월 0.19%로 매달 전달과 비교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남구의 전세가격은 6월 말 0.48%나 올랐다.

채소·과일값으로 대표되는 채감물가 역시 계절적 영향으로 급상승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국 17개 도시의 시장과 마트에서 벌이는 소비자 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7일 현재 배추 1포기의 값은 3075원으로 한 달 전보다 11.6% 올랐다.

시금치(1kg 기준)는 한 달 전 3989원에서 1만5064원으로, 수박 1통은 1만5300원에서 2만168원으로, 상추(100g)는 670원에서 1623원으로, 애호박 1개는 1197원에서 1822원으로 각각 오른 상태. 토마토, 오이, 열무, 미나리, 깻잎 등도 두자릿수로 상승했다. 신선 과채류 30여 품목 중 20개는 오름세다.

한편 롯데시네마가 메가박스과 CGV(주말 금~일 일반 요금 2회차부터 밤 11시 이전 현행 9000원에서 1만원으로 1000원 인상)에 이어 극장별 요금 인상에 나서며 등 일부 서비스 요금도 상승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연쇄도산 막자...기업구조조정촉진법 3년 연장

### 캠코 기업구조조정기금은 내년말까지 종료

정부가 경기 불황에 따라 기업의 무분별한 연쇄 도산을 막고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 대신 기업구조조정에 '정치입김'을 배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히 진행하기로 했으며, 기업구조조정기금은 내년 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이는 경기 불황에 따른 순이익 감소로 베풀던 지원금에 불만을 살리면서 경기민감업종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교육

책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기촉법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의 이런 입장은 이미 새누리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발의 법안에 반영돼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

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01년 제정된 이후 은행 등 금융사 재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여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조선, 건설,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의 부실 확대로 STX 조선 등이 자율협약에 들어가는 등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이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법안 연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은행들에 자율협약 기업의 채무 재조정에 대

해서도 해당 여신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자율협약 기업이라도 채무 재조정을 하려면 여신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라고 한 것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은행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 이제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 논리를 일질 배제하고 원칙에 따라 살릴 기업은 살리고 가망이 없는 기업은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자산관리공사)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권 인수 건설업체 지원 등에 쓰였던 기업구조조정기금을 내년 말로 정리한다. /연합뉴스



농협 희망봉사단 '사랑의 집고치기'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완도군지부, 완도농협, NH개발 등 농협 기술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농가희망봉사단'이 26일 완도군 완도를 군외면 및 신지면에서 어려운 농가의 낡은 주택을 무료로 개보수 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협 전남본부제공>

## 기아차 상반기 판매량 ↑ 매출·영업이익 ↓

기아자동차가 올 상반기 사상 가장 많은 숫자의 차를 팔았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기아차는 26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2013년도 상반기 경영실적 콘퍼런스를 열고 상반기 매출액 24조1974억원, 영업이익 1조8305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견줘 매출액은 0.6%, 영업이익은 21.0% 감소한 수치다. 기아차는 상반기 전 세계 시장에서 144만5431대를 팔아 지난해 상반기보다 판매량을 3.6% 늘리며 반기 기준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K3, K5, K7 등 K시리즈와 스포티지 R, 프라이드 등 주요 차종의 판매 호조와 브랜더 이미지 상승 등 영향으로 기아차는 분석했다.

판매 증가는 해외공장이 주도했다. 노조의 주말특근 거부 등의 영향으로 국내공장 생산분은 3.9% 감소한 81만8000대에 그쳤지만 해외공장에서선 15.4% 증가한 62만7000대를 팔아 국내공장 감소분을 만회했다. 판매는 늘었지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줄었다. 매출 감소는 원화 절상, 준중형 이하 차종의 비중 확대에 따른 판매 구성 악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아차는 영업이익 역시 특근 거부 때문 국내공장 가동률 하락과 가공비 증가, 1분기가 발생한 1회성 리튬 비용 등이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작년 상반기와 견줘 20.6%, 14.5% 감소한 2조4399억원, 1조9648억원을 기록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원화 강세, 연화 약세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해외시장에서 내수판매 감소분을 만회하고 지속적인 '재개발' 노력을 기울여 영업이익률 7.6%를 달성하는 등 선전했다"고 평가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주택 인허가 6개월 연속 감소 6월 3만8000가구 작년비 24% 줄어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주택 인허가 물량이 6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3만820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5만5344가구)보다 24.4%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6570가구에 작년 6월보다 26.4% 줄었고 지방도 22.8% 줄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9956가구로 작년 6월보다 34.8%, 아파트의 주택은 1만8252가구로 8.4% 각각 감소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8032가구로 작년 6월 대비 26.8% 줄었다. /연합뉴스

지난달 주택 착공실적은 3만423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하면서 지난 5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줄었다. 이에 비해 지난달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작년 6월에 비해 25.4% 증가한 4만2211가구로 올해 들어 처음 증가(전년 동월대비)했다. /연합뉴스

## "송정역환승센터 대규모 판매시설 안된다"

### 광주지역영업연대 반발

광주지역 자영업자들이 송정역 복합 환승 센터 내에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함께 살자! 광주자영업연대(준)'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중소기업인 보호를 위해 센터 내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연대는 "대기업 대규모점포

의 무분별한 진출 폐해를 막고자 유통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나 광산구 의회가 스스로 대기업의 지역진출을 허용하는 조례를 예외조항으로 개정하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연대는 "이는 시대를 역행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자영업연대는 "광주 내 등록된 대규모점포는 17개로 인구대비 밀도가

전국에서 울산 다음으로 높다"며 "과포화된 대규모점포의 영업으로 중소기업인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허용하면서 중소기업들과 상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소기업인 피해에 대해서는 눈 감고 대기업의 눈치만 보는 처사"라며 송정역에 또 다른 대기업 판매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지원 확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는 올해 수출 농식품의 해외 인증제도 등록 지원을 통해 고품질·고부가가치 농식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 농식품 해외 인증제도 등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식품 수출업체로 수출물류비 지원업체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됐다. 지원비용 또한 인증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했던 전년과 달리 올해는 비용의 70%까지 늘었다.

주요 지원 대상은 해외 각국에 농식품 판매를 위해 필요한 등록 제도 및 부가장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증제도이다. 러시아 표준규격(GOST), 인도네시아 공업인증제도(SNI), 미국식품의약품국(FDA), 중국국가식품감독관리국(SFDA),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SASO), 글로벌 갭(Global GAP) 인증 등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로또복권 (제556회)		2등보너스 숫자	
당첨번호	12 20 23 28 30 44	43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005,209,161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7,058,798	41
3	5개 숫자 일치	1,657,981	1,411
4	4개 숫자 일치	50,000	73,689
5	3개 숫자 일치	5,000	1,257,532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비파괴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미화 방수 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 자연산 참옷을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옷 보양식전문점

## 삼계탕 전문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 참옷: 토종 참옷닭 / 옷 청동오리 / 옷 삼계탕
- 한방: 한방 백숙 / 한방 청동오리 / 춘달백숙 삼계탕

토종참옷닭 (오전, 식사소 포함) **40,000원**

춘 달 백숙 **38,000원**

욱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웃닭 062)515-5757(웃칠웃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부병원 뒤(구,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